

[제2017- 호]

 한국문화원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쪽
배포일시	2017. 3.24 (금)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 당선 작가전:

서로에게 (One Another) 전시회 개최

“ 5 명이 만들어 내는 목소리 ”

- ▶ 전 시 명 : 서로에게 (One Another)
- ▶ 일 시 : 2017.4.7(금)-4.28(목)
- ▶ 개 막 식 : 2017.4.7(금)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 선정작가 : 아미르 팔라흐 (Amir H. Fallah - LA, CA), 줄리아 권 (Julia Kwon - Boston, MA), 최남원 (Namwon Choi - Savannah, GA), 구승휘 (Seunghwui Koo - New York, NY), 캐시 핏츠 (Cathy Pitts - Palm Springs, CA)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제23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에 당선된 5명의 작가 전 “서로에게” 전시회를 2017.4.7(금)부터 4.28(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LA문화원 공모전은 1993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인종, 학벌,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전업 프로작가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을 통한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이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은 미 전역에서 수준 높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60명의 공모에 응모하였다.

심사위원 또한 미 주류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큐레이터 및 비평가들로 해마다 2-3명으로 구성하여 항상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정위원은 토렌스 아트뮤지움의 디렉터이며 헤드 큐레이터인 맥스 프레스네일(Max Presneill)과 LA 유니시펄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 에린 크리스토베일(Erin Chrostovale)이 참여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5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미국 내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동 전시회에 올해 전시는 설치 미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LA한국문화원은 타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통의 매체를 예술로서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술은 다른 커뮤니티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준다면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LA한국문화원의 현대미술 공모전이야말로 이에 알맞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낙중 문화원장은 언급했다.

<서로에게> 전시는 2017년 4월7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4월28일(금)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참여 작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

▶ 선정작가;

1. 최남원 Namwon Choi (Savannah, GA)



In-betweenness, Installation, 2016

최남원작가는 11년 동안 미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한국과 미국 두 사회에서 지위와 관념이 중간에 끼인 자, 즉 소속된 자와 소외된 자의 중간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동성을 가진 이주(migration)를 작품의 주 소재로 다루었다. 그녀의 설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타이어와 고속도로,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매체들은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2. 아미르 팔라흐 Amir H. Fallah (LA, CA)



The Caretaker, Mixed Media Installation, 2015

아미르 팔라흐(Amir H. Fallah) 작가는 이란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알레고리들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하여 회화, 설치, 드로잉,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연출해 낸다.

그에게 창작이라는 과정은 그림이나 사진 등 현대적인 초상화법을 구상하는 현대미술가로서 진실의 영역을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3. 구승휘 Seunghwui Koo (New York, NY)



No Place to Go, Mixed Media, 2013

구승희작가는 어린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으며,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서로의 문화는 달랐으며,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돼지에 대한 문화적 개념도 서로가 확연히 달랐다. 한국에서의 돼지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며, 이곳은 탐욕과 욕심을 상징한다, 돼지의 이런 이중적 이미지는 인간의 선과 악, 양면적 본성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구승희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대한 반성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4. 줄리아 권 Julia Kwon (Boston, MA)



Like Any Other No 28, Fabric and wire

줄리아권 작가는 “ Like Any Other” 시리즈를 통하여 성과 인종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다. “ 한국적인 것” 그리고 “ 여성적인 것” 이라 단정짓게 하는 기준들을 재고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 한국적임” 을 상징하는 보자기를 만들고, 그 조각보 디자인을 갈고, 찢고, 변형시켜 고정되고 편협한 선입견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렇듯 그녀는

작품 속에서 단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식별하고, 분류하고, 비인간화시키는 차별에 대한 비판을 논하고 있다. 작가는 또한 한국의 색동과 다양한 현대의 천과 무늬들을 결합함으로써 세계적인 교류에 의한 문화의 혼종성을 표현하고 있다.

5. 캐시 핏츠 Cathy Pitts (Palm Springs, CA)



Monet's Diamond, Oil on Canvas, 2014

모험적인 실험을 즐기는 캐시 핏츠는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특히 대조되는 요소들, 즉, 추상화와 사실화 혹은 초현실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 등 다채로운 재료들을 서로 융합하여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캐시 핏츠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도발적인 구성과 정열적인 표현 방식은 빠르고 생명력 넘치는 현대 생활을 대변하는 힘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